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3 columns: EBS1, EBS2, EBS3. Rows 05:00-09:35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Table with 3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Rows 00:00-11:00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Plus channels.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음) 1월 14일 己卯). Rows for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horoscope text.

신해철 사망사건... 의료과실 인정

“살릴 기회 두 번이나 놓쳤다”

경찰, 이번주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 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에 신씨를 살릴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불필요한 수술로 천공 유발 의혹=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경 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의 장형착 수술을 집도했다.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수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착들은 이 과정에서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수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검결과를 보면 이러한 설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벽화술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씨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 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않았을 것이라 의미다.

◇“병원측, 신해철 살릴 두 차례 기회 모두 놓쳤다”=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 “자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기면 소장과 심낭에 서서히 구멍이 뚫렸을 공상이 크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박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 원장에게 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술을 받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된 점을 짚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를 퇴원시켰다.

강 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씨를 검진하면서도 두 번째 기회를 맞았지만 역시 살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 잠아는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투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과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 “신씨도 일부 과실” 주장=결국 신씨는 두 번째 퇴원한지 이틀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심장지를 일으켰고, 아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숨졌다.

경찰은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신씨는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혈성 뇌손상의 순차적 경과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병원측은 신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첫 번째는 의사의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뺨가를 먹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은 “강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진료후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막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사 신씨가 퇴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이연희·김재원·차승원·박영규

차승원 “TV 드라마 첫 사극 기대되네요”

MBC 월화극 ‘화정’...이연희·김재원·박영규 등 호화 캐스팅

KBS 2TV ‘왕의 얼굴’, 1TV ‘징비록’에 이어 조선 선조-광해군 시대를 그리는 TV 드라마가 새롭게 찾아온다.

3일 홍보사 터미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방영되는 MBC TV 월화드라마 ‘화정’(50부작)은 조선 14대 왕 선조와 적녀인 정명공주, 서자인 광해군과 손자 인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작년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에서 노획한 정치가 이인임으로 출연했던 박영규는 이번 작품에서는 선조로 등장해 서막을 연다. 차승원이 아버지 선조의 질시와 배척 속에서도 자신을 무자비하게 단련해 후 왕좌에 오르는 광해군 역을 맡았다.

사극 영화 ‘혈의 누’와 ‘구르를 버서난 탈처림’에 출연했던 차승원은 “TV 드라마로서 ‘정도전’에서 노획한 정치가 이인임으로 출연하는 ‘화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주연을 맡았던 이연희는 정명공주로 분한다. 그는 광해군 때문에 신분이 추락하지만 악착같이 살아남아 정권 장악부터 화기도감(총포 제작을 담당하는 관청)에 임명한다. 선조의 또 다른 서자인 정

원군 아들로, 아침이 능양군은 김재원이 맡았다. 첫 악역 연기에 도전하는 김재원은 권력욕으로 동생마저 죽임으로 내몰고 왕의 자리에 앉은 인조로 등장한다. 이밖에 정치적 신념을 함께 하는 광해군과 정인 정명공주 사이에서 고뇌하는 홍주원 역에는 서강준이 캐스팅됐다. 작년말 tvN ‘미생’ 오 과장으로 인기를 누린 이성민은 원칙과 도덕, 소신을 지키는 한을 이덕형 역을 맡았다. 이덕형은 선조 죽음에 의문을 품고 추적하면서 전반부에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창완이 청백리 표상인 이원익으로, ‘징비록’에서 왜를 통일한 정치가 도요도미 히데요시로 출연 중인 김규철이 권력욕에 찌든 김류로 나온다. 이밖에 김광규가 조선에 없는 유왕광산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이영부로, 박원상이 화기도감 염조장인 장봉으로 출연한다. 정웅인이 광해 정권의 최대 실력자이자 정명의 가장 큰 적인 이이첨으로, 김여진이 역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궁인인 김계시로, 신은정이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은 인목대비로 캐스팅됐다. /연합뉴스